

ESG경영과 지속가능성

이재혁

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& ESG연구원 원장
IESGA (국제ESG협회) 회장

기업 지속가능성: 현황

- S&P500 상장 기업의 평균 수명
 - 1958년에는 61년; 1975년에는 22년
 - 2027년에는 12년으로 예상
- 2022년 국내 상장사
 - 17.5%는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“한계기업”
 - 2016년 한계기업 비율(9.3%)보다 불과 6년 사이에 두 배 가량 증가
 - 당해연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“일시적 한계기업”은 30.8%
 - 한미일 중 가장 높은 수치

기업 지속가능성: 불확실성 심화 및 결과

- 경영환경 악화
 - 코로나19 팬데믹 &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
 - 최근의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
- 각국의 "신"산업정책
 -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, 유럽 핵심원자재법(Critical Raw Materials Act)
 - 공급망 관리 등
- ESG에 대한 피로감 증대

May 3, 2023

How are companies reacting to anti-ESG efforts?

**In Focus: ESG becomes a political battleground
in the US**

**'ESG' is under attack. Here's how
CEOs can fight back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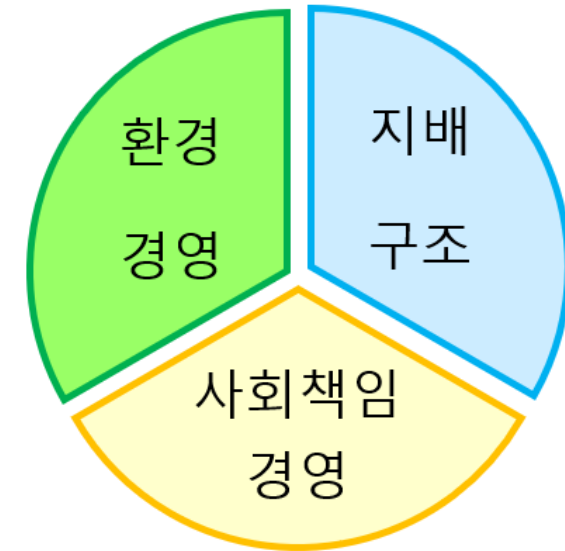
ESG Is Dead, Long Live ESG!

ECONOMY & TECH

**What's Behind the ESG Investing
Backlash in the United States?**

ESG: 의미 및 구성요소

- 구성요소: 환경(E)·사회(S)·지배구조(G)
-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적 수익성 뿐만 아니라, 사회적 책임, 환경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는 경영활동
- 고려 요소 (예시)



환경 (E)

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
대기 및 수질오염
환경법규 준수
재생에너지 사용
폐기물 관리

사회(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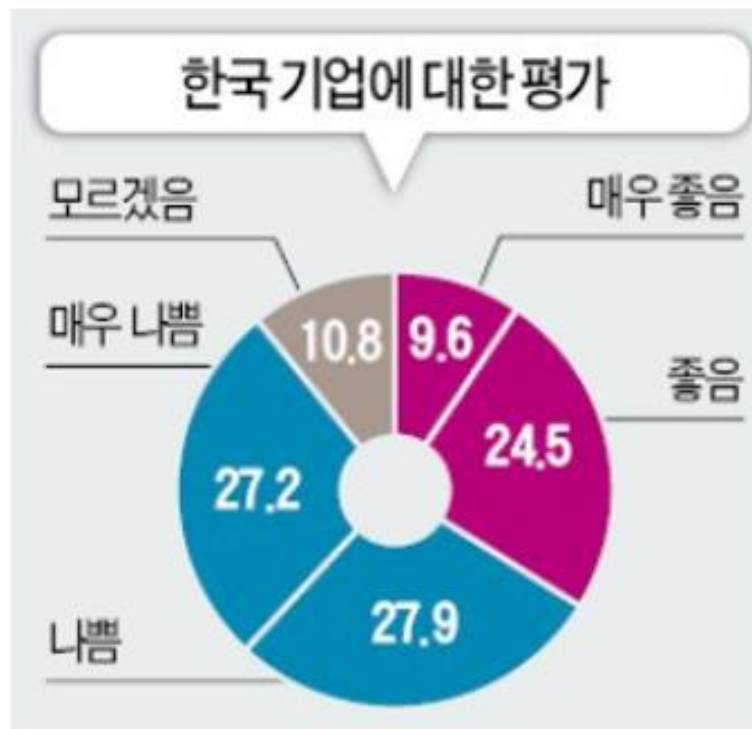
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
노사관계
근로자 안전
차별금지
소비자 안전 및 보건

지배구조(G)

주주권리 보호
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
감사제도
뇌물 및 부패 방지
내부 고발자 제도

사회구성원의 관심/이해 변화

<2017년 2월 한국경제TV>



<2021년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>

반기업정서
'존재한다'

93.6%

기업 내재
44.1%

v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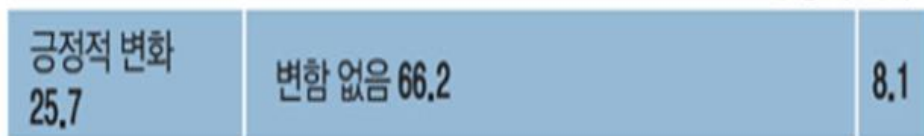
기업 외부
55.9%



사회구성원의 관심/이해 변화 (계속)

<2022년 9월 매일경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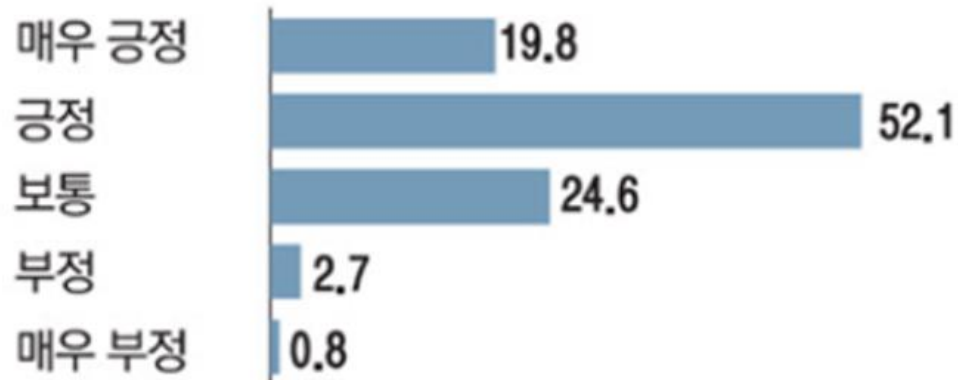
최근 2년 새 기업 호감도 변화(단위=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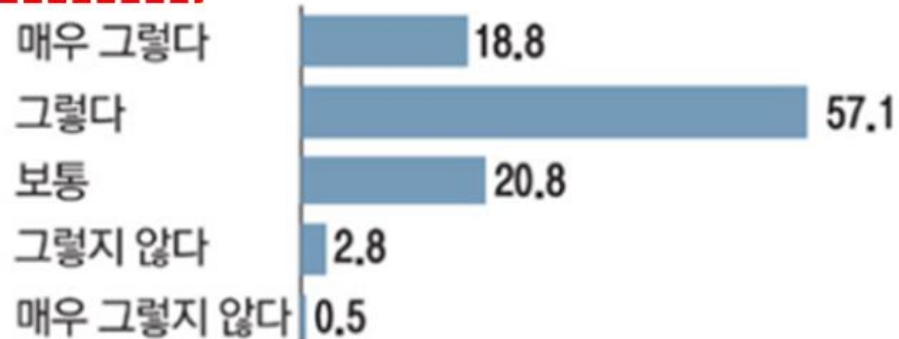
기업에 호감을 갖게 된 이유(단위=%)



ESG경영에 대한 평가(단위=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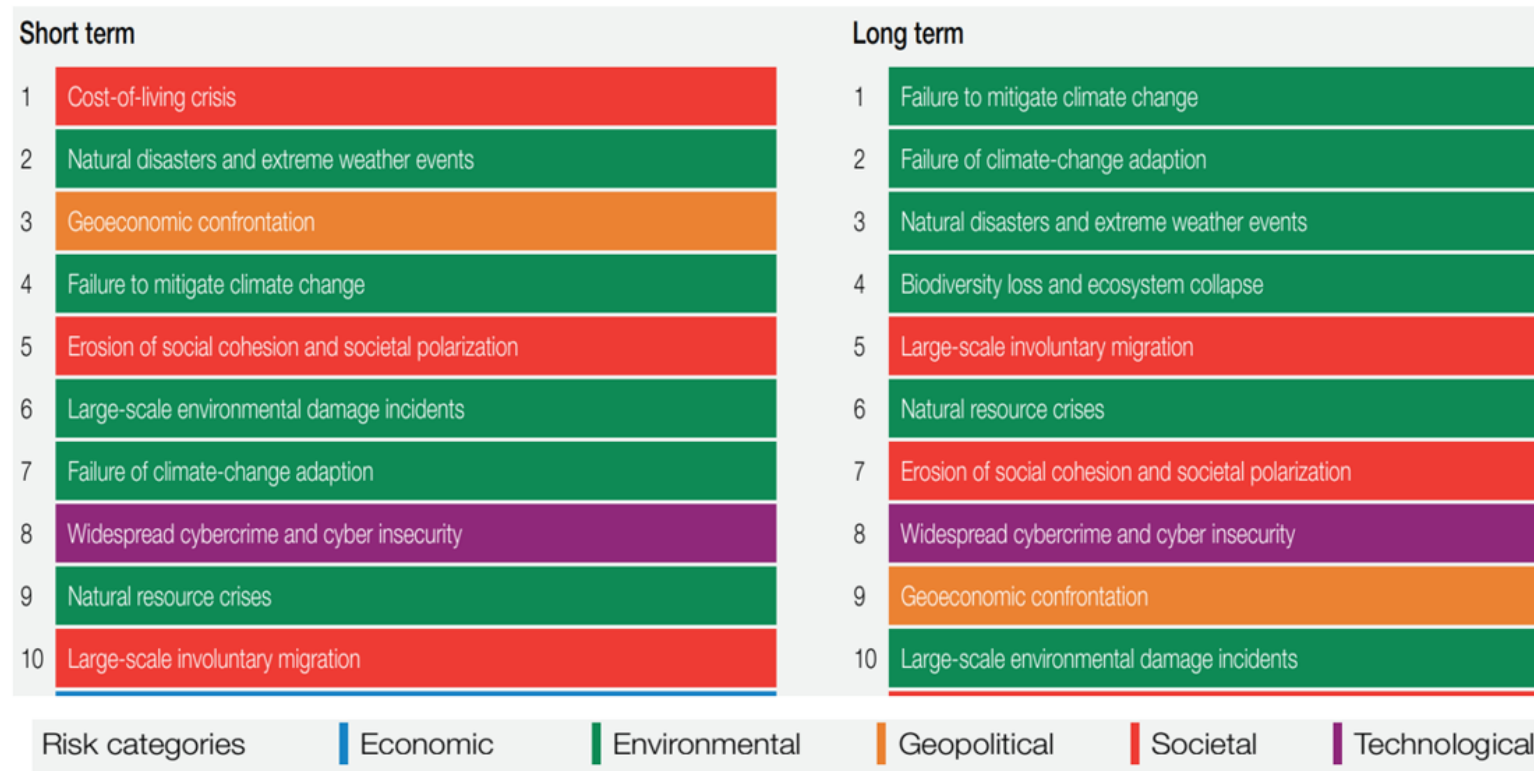
ESG경영이 기업 호감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가(단위=%)



“E(환경)”관련 주요 이슈

“심각성” 급증

- 주요 원인
 - 글로벌 장단기 리스크의 대다수가 E(환경)과 직결



Source: Global Risks Report 2023.

“규제요구” 증가

- 주요 원인
 - E(환경)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각종 행위 존재
 - Greenwashing
 - Greenshifting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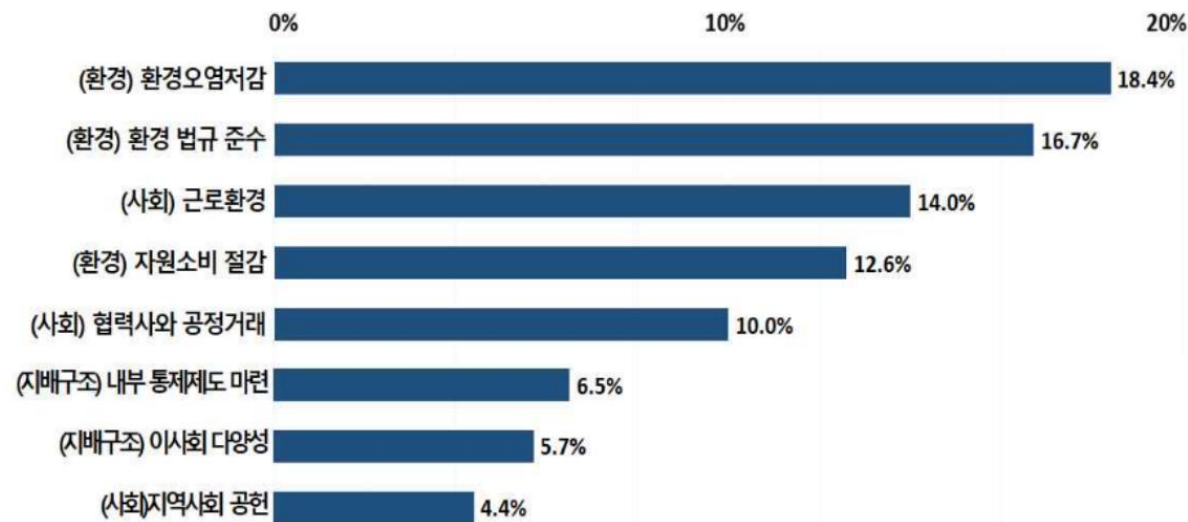
- 주요 결과
 - S(사회), G(지배구조) 대비 E(환경)관련 규제요구 현황



Source: Capital Market Risks Trigger Calls for New Rules: ESG Survey. Bloomberg. 2022.

“대응난이도” 증가

- 중기 정책연구 리포트 (2023년 5월)
 - 가장 준비가 어려운 ESG 부분
 - 47.7%: E(환경)
 - 32.8%: S(사회)
 - 15.1%: G(지배구조)
 - 가장 준비가 어려운 구체적 이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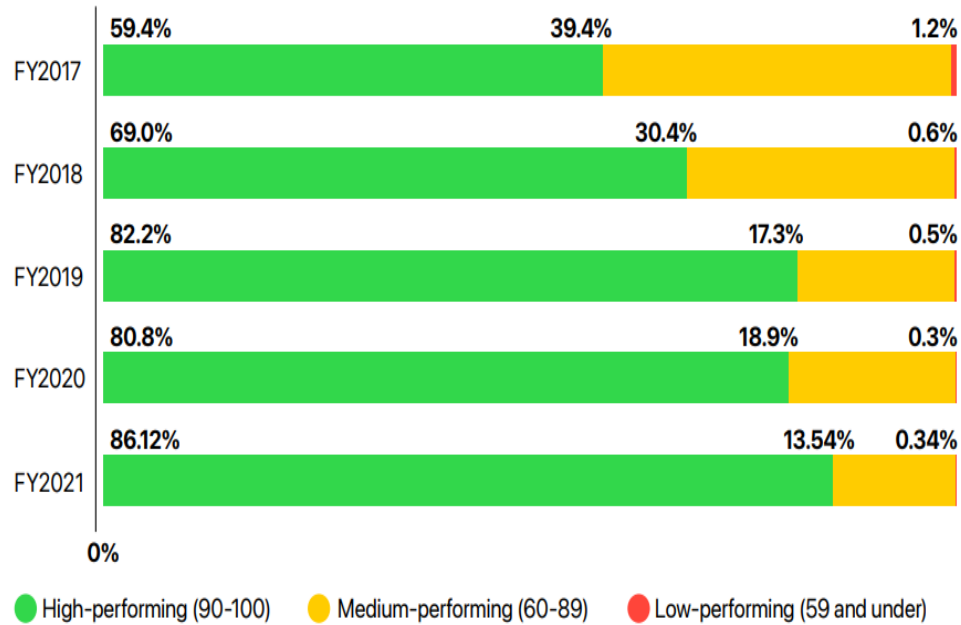
“ESG관련” 주요 동향 및 시사점

선진국(유럽) 주도의 ESG 규제강화 및 법제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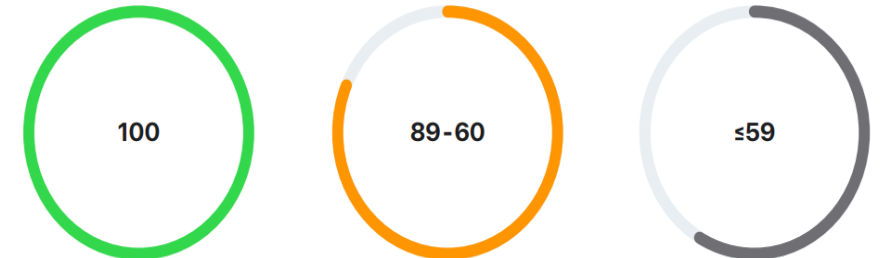
- 각종 규제 및 법안 등장
 - 탄소국경조정제도, 탄소중립산업법, 핵심원자재법, 인플레이션 감축법안, 청정경쟁법, 재생가능한 저탄소 항공/선박 연료 규정, 승용차 탄소배출 규정 등.....
 - 몇몇 정부 및 글로벌 리딩 기업에 의한 "새로운 무역 (및 거래) 장벽"
 - "사다리 걷어차기" vs. "대의명분"
- '공급망 관리' 관련 규제
 - ESG경영을 평가할 때 해당기업의 공급망까지 확대
 - 수출기업 (대기업 & 중소기업)의 비용 증가 및 거래 중단 위험

Apple의 공급망 관리 현황 (2022 Annual Progress Report)

Year-over-year supplier performance



Our 100-point scale for supplier assessment scores



High-performer

- Mature management systems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
- Minor and isolated Code violations
- Assessments typically identify 50% or fewer findings as compared to other suppliers

Medium-performer

- Typically have some management systems in place, but may be underdeveloped or implemented inconsistently
- May have major, isolated Code violations and/or numerous minor violations
- Average number of assessment findings as compared to other suppliers

Low-performer

- Management systems are severely underdeveloped or non-existent
- Major violations found across a number of Code categories
- Assessments typically identify 2x the number of findings as compared to other suppliers
- Any supplier found to have a Core Violation of our Code, whether during an assessment or at another time throughout the year

공급망 실사: 실무적 시사점

- 원청업체

- 기업에 대한 비영리기구 및 지역사회의 소송 제기가 증가할 가능성
-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가 협력사 선정 기준이 될 가능성
- 공급망 위험요소가 높은 국가 (i.e., 중국, 아프리카, 남미)의 기업 대신 실사의무 관련 대응이 쉬운 국가의 기업으로 공급망을 재편할 가능성

- 협력업체

- 중소기업도 공급망 실사 법제화에 적극적인 대응자세 필요
- 거래선에서 ESG 부진한 중소협력업체들이 실제 배제되는 사례 발생 중
 - Apple 24/1121
 - GE 71/1286
 - BMW 108/3220

국내 현황

-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은 인식
 - 협력이 중요한 이유
 - ▶ 제품/서비스 경쟁력 강화
 - ▶ 거래관계 유지
 - ▶ 매출이익 증대
- '준비하고 있지 않다': 46%
- 기대하는 지원방안
 - 설비투자, 맞춤형 컨설팅, ESG 교육 등

한국기업 공급망 ESG 관리 준비실태

자료: 대한상공회의소

※2021년 12월 ESG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업 설문조사



한국 업종별 공급망 ESG 위험 노출도

자료: 한화투자증권

건설·조선·기계	매우 높음
자동차·시멘트·에너지·화학·철강	높음
비철·목재·화장품·의류	보통
보험·증권·통신·호텔·레저	낮음
미디어·교육	매우 낮음

국내 현황 (계속)

- 수출기업 300개사 대상 "공급망 현황 조사 결과" (2022년 7월, 대한상공회의소)

< 원청 기업의 ESG 실사 대응 수준 / 단계별 대응 수준 >

문항	공급망내 ESG 실사 대응 수준				실사 단계별 대응 수준			
	매우 낮음	다소 낮음	다소 높음	높음	사전준비단계 (조직/시스템구축)	실사 진행	실사+피드백 진행	대응체계 없음
응답률(%)	41.3	35.9	21.6	1.2	27.5	10.8	3.6	58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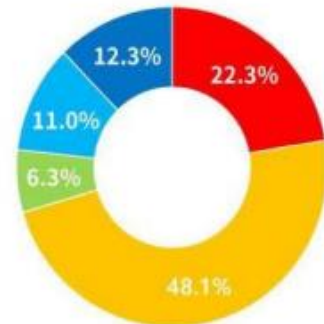


* ESG 미흡으로 인한 계약수주 파기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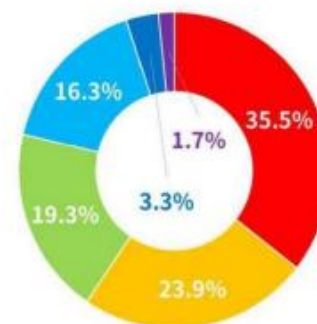
< 공급망 내 협력업체의 'ESG 실사, 진단/평가, 컨설팅' >

항목	경험 있음	없지만 곧 시행 예정	현재/미래 계획 모두 없음
실사(%)	8.8	31.6	59.6
진단/평가(%)	11.8	30.1	58.1
컨설팅(%)	7.3	28.7	64.0

< 공급망 실사 관련 애로사항 >



< 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>



■ 비용 부담 ■ 내부 전문 인력 부족 ■ CEO/경영진 관심 부족 ■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 ■ 실사 비용 지원 ■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
■ 협력사 ESG경영 인식 부족 ■ 공급망 ESG실사 정보 부족 ■ 인프라 및 시스템 비용 지원 ■ ESG 인증 서비스 제공 ■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제공

국내 현황 (계속)

- 수출기업 300개사 대상 “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결과” (2023년 2월, 대한상공회의소)
 - 가장 중요한 ESG 현안
 - ‘공급망 실사’(40.3%); ‘ESG 의무공시’(30.3%), ‘순환경제 구축’(15.7%), ‘탄소국경조정제도’(12.0%), ‘생물다양성 대응’(1.4%), ‘ESG 워싱’(0.3%)
 - 하지만 공급망 ESG 실사 대응 수준: 원청기업 & 협력업체 모두 취약

구분	[실사 이전 단계] 실사 시스템 구축	[본격 실사 단계] 온라인/현장 실사	[실사 후 피드백 단계] 실사 후 개선조치 요구	별도 조치 없음
원청기업	24.9%	14.5%	12.4%	48.2%
구분	대응 조직 구성	진단/평가 시행	진단/평가 후 컨설팅 시행	별도 조치 없음
협력업체	13.7%	26.2%	13.1%	47.0%

- 원청기업 48.2%, 협력업체 47.0%: ‘현재 별다른 대응 조치 없음’이라고 응답

공급망 관리: 체계적 접근방식 필요

- 공급망 전체를 따라 ESG 경영 실천 (혹은 압박) 가능
- E(환경)
 - 자사의 직간접(Scope 1 & 2) 뿐만 아니라 협력사(Scope 3)의 탄소배출도 포함 및 관리 필요
- S(사회)
 - 강제/아동 노동 연계 의심만으로도 소싱 변경 및 노동환경 감시 약속
- G(지배구조)
 - 주주 행동주의가 협력사에 대해서도 윤리경영 압박 및 거버넌스 이슈 강조

ESG경영: 일반적 고려사항

- ESG 관련 자료
 - 공급: 양적 및 질적 증가 (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의 지속적 확대)
 - 수요: 고도화 및 전문화 (Big data, AI, Machine learning, etc.)
- ESG 성과
 -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훌륭한 “추가 자료”
 - vs. 경영활동에 대한 제약
- ESG에 대한 전략적 접근필요
 - 목표 설정 및 달성 수단 구체화
 - KPI와의 연계
 - 평가
 -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과정, 결과, 계획 공유
 - 새로운 추세나 외부 요구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

ESG경영: 대-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고려사항

- 기업: ESG경영 사고의 전환 필요
 - 관리 대상: 자사에서 협력업체까지 확대
 - 경쟁력 분석단위: 자사와 협력업체가 속해 있는 생태계(가치사슬) 전반
 - 가치사슬상의 협력업체와 공동 대응 필요
 - 협력업체의 ESG 역량 지원을 통한 자사의 경쟁력 유지 및 확보
- 정부: 조력자 역할 필요
 - 각종 인센티브 제공
 - 영국의 산업 탈탄소화 전략 (Industrial Decarbonization Strategy, 2021)
중소기업의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
 - ESG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경영자원의 중복 낭비 방지
 -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시너지 달성
- 궁극적 목적
 - 한국의 기업들이 ESG시대에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